

〈김현감호설화(金現感虎 說話)〉의
소설적 변용 연구
- 김동리의 〈호원사기(虎願寺記)〉를 중심으로

방민화

1. 서론

현대시에서는 『삼국유사』의 설화를 수용하여 개성적인 작품을 생성하고 있다. 문학사와 역사서의 보고(寶庫)인 『삼국유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¹⁾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에 비해 소설에서는 『삼국유사』의 설화 활용이 미미하다. 그런데 김동리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상상력의 원천으로 하여 16편의 단편소설을 완성했다. 이런 점에서 『김동리 역사소설』²⁾은 독보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김동리 소설 연구는 그의 초기소설에 편중되어 있고 역사소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김동리의 역사소설까지 온전히 구명(究

1) 그 대표적인 시인이 서정주이다. 그는 200여 편의 시에 설화를 수용하였는데 그 중 57편이 『삼국유사』의 설화를 수용한 것이고, 그 밖의 역사서도 시에 수용했다. 임문혁, 「한국현대시의 전통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1992 참조.

2) 김동리, 『김동리 역사소설』, 지소림, 1977. 본고의 텍스트는 『김동리전집』4(저승새·만자동경), 민음사, 1995. 이후 본문 인용은 출처를 생략하고 페이지 수만 밝히기로 한다.

明)하여야만 김동리의 소설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동리 역사소설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출발한다.

『김동리 역사소설』의 근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이다. 『김동리 역사소설』이 양적 측면에서 『삼국사기』에 치중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삼국유사』에 상상력의 뿌리를 강하게 드리우고 있다.³⁾ 그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서로 다른 특질 때문이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그 밖의 기존 역사서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 비롯된 설화집으로서 당대 상황과 당대의 민중적 흔적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 편집 체계는 “연대기(王歷)-신화(紀異)-‘사실들(逸事, 遺聞, 傳奇, 說話)’을 한데 엮는 새로운 지평에서 그 모두를 하나로 보는 어떤 ‘실재관(實在觀)’을 드러내고”⁴⁾ 있다. 설화의 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세계이며 그것은 곧 김동리가 추구하는 천지인(天地人)이 합일된 세계이다. 이런 점에서 김동리가 추구하는 세계와 일연의 실재관(實在觀)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설화를 수용하여 허구화한 작업은 김동리에게 자연스러운 문학적 경로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작품은 『삼국유사』 感通 〈金現感虎〉를 소설화한 〈虎願寺記〉이다. ‘金現感虎型 說話’는 『三國遺事』, 『大東韻府群玉』, 『東京雜記』, 『補閑集』 등 문헌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구전되어 오고 있어 그 전승의 연원은 오래 되었다. 〈虎願寺記〉라는 소설 제목이 나타내듯이 불교사찰 연기설화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불교적 소재가 가득하다. 그런데 그것을 정밀히 검토하면 불교정신 혹은 불교의식을 표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외피에 불과하므로 불교정신을 천착

3) 문홍술, 〈신, 인간, 자연의 합일을 지향하는 설화소설〉, 문홍술·박덕규 엮음, 『소설 신라열전』, 청동거울, 2001. 304-305쪽.

4) 정진홍,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 강, 2003, 73쪽.

하려는 연구는 지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적 의피로 감싸여져 있으나 그 속에 내재된 정신이나 사상, 그리고 작가의 불교 이해도 등에 있어 현저히 그 본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⁵⁾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먼저 선행 텍스트인 『삼국유사』 感通 <金現感虎>의 내용과 설화적 의미를 살펴본 후에 설화 <金現感虎>와 소설 <虎願寺記>의 차이를 비교·고찰하여 소설적 변용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품에서 여성 인물이 희생물이 된다는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이론을 원용하여 그 의미를 밝힐 것이다.

2. 설화 <김현감호(金現感虎)>

『삼국유사』 感通 <金現感虎>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사랑 이야기, 신도징이 호랑이 처녀와 결혼한 이야기, 사람과 호랑이의 감응에 대한 편찬자 일연의 의론과 찬시(讚詩)이다.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하룻밤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뒤이은 ‘신도징이 호랑이와 결혼한 이야기’는 중국의 『太平廣記』 권429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으로, 신도징이 결혼하여 두 아이까지 두었는데 신도징의 아내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쓰자 호랑이로 변하여 집을 박차고 나갔다는 내용이다. 신도징의 아내가 부부의 인연을 저버리고 본래의 신원대로 호랑이로 귀환한 것이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호랑이 처녀가 사람과 정을 통했다는 점과 그 처녀가 호랑이로 변신했다는 점이다. 일연이 호랑이 처녀의 희생과 배신이라는 상반된

5) 장영우, 「김동리 소설과 불교」, 『불교어문논집』 6집, 2001. 61쪽.

이야기를 병치한 것은 대비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 이야기인 『삼국유사』 感通 〈金現感虎〉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성왕 때 홍륜사 복회(福會)에서 탐돌이를 하던 김현과 한 처녀가 서로 눈길을 던져 정을 통하게 되었다.
- ② 때가 되어 처녀가 돌아가며 따라오지 말라는 만류에도 김현은 따라갔다.
- ③ 서산 기슭 초가집에 사는 처녀의 모친은 아들들이 김현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처녀가 그를 숨겼다.
- ④ 처녀의 오빠인 호랑이 세 마리가 돌아와 비린내를 맡고서 식탐을 내자 처녀와 그의 모친이 함께 나무랐다.
- ⑤ 이때 하늘에서 호랑이가 많은 생명을 해쳤으니 마땅히 하나를 죽여 징계하겠다는 소리가 들렸다.
- ⑥ 오빠들이 멀리 피신하여 반성한다면 처녀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하자, 세 호랑이는 기뻐하며 달아났고, 그때에 비로소 처녀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김현의 손에 죽어 그에게 벼슬을 얻게 하여 김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다.
- ⑦ 김현이 이를 거절하자, 처녀가 자기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다섯 가지 이득을 말했다.
- ⑧ 이튿날 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나 날뛰자 원성왕이 벼슬을 걸고 호랑이를 잡도록 했다
- ⑨ 김현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하자 왕은 벼슬을 내려 격려하고, 김현은 처녀와 약속한 대로 숲속으로 갔다.
- ⑩ 처녀는 김현에게 호랑이한테 다친 상처의 치유법을 말해주고 김현이 찬 칼을 뽑아 자결했다.
- ⑪ 김현은 호현사(虎顯寺)라는 절을 세우고 호랑이 처녀의 명복을 빌어 주었다.

〈金現感虎〉는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혹은 ‘김현이 호랑이에

감동되다’ 또는 ‘김현, 호랑이와 감통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다.⁶⁾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라는 번역은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金現感虎>는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희생 이야기이고, 그 말미에 김현이 『범망경(梵網經)』을 강(講)해 호랑이의 명복을 빌어 주었고, 그가 죽을 무렵에 예전 일의 신비로움을 새삼 깊이 느껴 붓을 들어 전기를 지었다고 부연되어 있다. 이로 보아 ‘김현이 호랑이에 감동되다’라는 번역이 적절하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일연의 의론(議論)에 따르면,

김현과 호랑이가 만난 이야기의 시중을 자세히 살펴보면 호랑이가 절에서 탑돌이를 할 때에 사람을 감동시켰고, 하늘이 (오빠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고 외칠 때에 자기의 몸으로 대신했으며, 신기한 약처방을 전해 사람들을 구제했고, 절을 세워 불계(佛戒)를 강설하게 했다. (이런 점들로 본다면) 그 호랑이는 짐승 가운데 성품이 어진 자 일뿐만 아니라 부처가 사물에 감응하는 방법이 다양해, 김현이 정성을 다해 탑돌이를 하는 모습에 감동되어 남모르는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김현이 당시에 이러한 복을 누린 것이 의당하지 않은가.⁷⁾

라고 하여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김현과 호랑이가 상통(相通)한 것이므로 ‘김현, 호랑이와 감통하다’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

6)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삼국유사』, 이가원·허경진 옮김, 2006.

<김현이 호랑이에 감동되다>,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1.

<김현, 호랑이와 감통하다>, 『삼국유사』 하, 이동환 역주, 삼중당, 1983.

7) 詳觀事之終始，感人於旋逸佛寺中，天唱微惡，以自代之，傳神方以救人，置精蘆講佛戒，非徒獸之性仁者也。蓋大聖應物之多方，感現公之能致精於旋逸，欲報冥益耳，宜基當時能受禧佑乎。(『三國遺事』第七 <金現感虎>)

3. 감통(感通)의 세계에 숨겨진 여성의 희생제의

“신라 풍속에 매년 중춘 첫 8일부터 15일까지 도성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며 흥륜사의 전탑을 도는 복회(福會)를 행했다”⁸⁾ 당시는 3월이 초춘이고, 4월이 중춘이며, 5월이 계춘이다. 중춘 첫 팔일이란 사월 초파일 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⁹⁾ 복회는 연례행사(年例行事)로 사람들이 절의 전탑(殿塔)을 도는 축제이다. “답돌이 행사는 이전의 동이족 사회에서 유행하던 거국적 축제의 장이 불교의 수용 및 정착 과정에서 불교식 축제로 변모되고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흥륜사의 복회 때 김현이 처녀를 만나 그날 밤 정을 통한 후에 처녀의 만류에도 그녀를 따라갔다. ‘郎君金現’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김현은 화랑이거나 상류계급의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고, 처녀는 ‘서산 기슭의 초가집(茅店)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하층계급의 미천한 신분임을 알 수 있다. 집에 도착하여 처녀는 자신의 오빠인 세 마리 호랑이가 김현을 해칠까봐 숨기지만 세 호랑이는 비린내를 맡고 식탐을 낸다. 이로 인해 처녀는 자신이 인간과 다른 이류(異類)라는 신원을 김현에게 밝히게 된다.

『삼국유사』〈金現感虎〉의 호랑이 등장과 같이, 경주 도성(都城)에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혜공왕 사년(惠恭王四年)에 보면, 혜성이 나타나고 천재지변이 있었으며 호랑이가 출현한 후에 일길찬(一吉澣) 대공(大恭)이 그 아우 아찬(阿澣) 대염(大廉)과 함께 모반하여 무리를 모아 왕궁을 에워싼 지 33일 만에 왕군(王軍)이

8) 新羅俗，每當仲春，初入至十五日，都人士女，競興輪土之殿塔爲福會。(『三國遺事』第七〈金現感虎〉)

9) 신라사학회,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통일신라편), 경인문화사, 2008, 95쪽.

10) 위의 책, 96쪽.

평정하여 그의 구족(九族)을 죽였다¹¹⁾는 기록이 있다. 또 혜공왕 육년(惠恭王 六年)에는 혜성의 출현과 김유의 반란 사이에 호랑이가 출현했다¹²⁾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혜성과 호랑이의 출현이 반란에 앞선 불길한 조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金現感虎〉의 호랑이 등장도 권력의 암투로 인한 반란의 조짐을 암시하며 신라 원성왕 시대의 역사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설화의 배경이 되는 원성왕 대에는 왕권계승과 그로 인한 분규로 신분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이 호랑이가 등장하는 우화적이고 전기적(傳奇的)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왕은 벼슬을 내걸고 성안에 소동을 벌이는 호랑이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호랑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저항세력으로 사회적 분란을 초래하고 있는 체제 밖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세 마리 호랑이가 많은 목숨을 즐겨 해쳤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한 짓을 징계하리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난다. 악행을 징벌하려는 절대자의 소리를 통해 세 호랑이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잃은 세력”¹⁴⁾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떠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결국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희생물을 폭력적으로 죽이는 희생제의를 거행’¹⁵⁾하게 된다. 하늘의 경고는 호랑이 형제에게 닥친 위기이다. 이때 세 호랑이

11) 四年 春 彗星出東北 (….) 六月 京都雷雹 傷草木 大星隕皇龍寺 地震聲如雷 泉井 階渴 虎入宮中 秋七月 一吉浪大恭與弟阿浪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 平之 誅九族(『三國史記』〈新羅本紀〉第九)

12) 六年 (….) 彗星出五章北, 至六月十二日滅. 二十九日, 虎入執事省, 捉殺之, 秋八月, 大阿浪金融叛, 伏誅(『三國史記』券 第九)

13) 임갑남, 「〈金現感虎〉의 傳記성과 역사 현실적 의미」, 『신라학연구소』 제2호, 109쪽.

14) 위의 글.

15)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 살림, 2003, 29쪽.

에게 닥친 집단적 위기를 처녀가 오빠를 대신하여 그 벌을 받겠다고 자청한다. 처녀는 속죄(expiation)의 의미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것이다. 결국 처녀는 ‘죄인coupable 대신에 대가를 치루는 무고한 존재innocente’¹⁶⁾로 희생양이 된다.

“(…) 이제 하늘이 세 오빠의 죄악을 미워하시니 저희 집안에 미칠 재앙을 제가 대신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왕 죽을 몸이라면)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죽기보다 차라리 낭군의 칼 아래 죽어서 그 은덕을 갚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내일 시장에 들어가 사람들을 마구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저를 어찌지 못할 테니, 대왕께서 반드시 높은 벼슬을 내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잡게 할 것입니다. 낭군께서는 겁내지 말고 성 북쪽에 있는 숲속까지 저를 쫓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¹⁷⁾

처녀가 김현의 손에 죽어서 그 은덕을 갚고자 하나 김현은 처녀의 죽음으로 벼슬을 할 수 없다며 그 뜻을 거절한다. 이에 처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다섯 가지 이득을 들어 말한다.

이제 제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면서 또한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낭군께서는 경사가 되고 우리 집안에는 복이 되며, 나라 사람들에겐 기쁨이 됩니다. 이 한 몸이 죽어서 다섯 가지의 이익이 갖춰지는데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해서 절을 세우고 불경을 강해 좋은 업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낭군의 은혜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을 거예요.¹⁸⁾

16)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옮김, 민음사, 2000, 14쪽.

17) 三兄之惡，天旣厭之，一家之殃，予欲當之。與其死於等閑人之手，曷若伏於郎君刃下，以報之德乎。妾以明日入市爲害劇，則國人無如我何，大王必募以重爵而捉我矣。君其無恟，追我乎城北林中，吾將待之。(『三國遺事』第七〈金現感虎〉)

18) 今妾之壽夭，蓋天命也，亦吾願也，郎君之慶也，予族之福也，國人之喜也。一死而五利備，其可違乎。(『삼국유사』第七〈金現感虎〉)

이튿날 처녀는 호랑이로 변하여 난동을 피우고 숲에서 김현을 만나 다시 처녀로 변해서 호랑이한테 다친 사람의 상처 치유법까지 알려주는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자결한다. 복회라는 불교 축제 행사에서 처녀와 김현이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 이튿날 처녀가 희생제물이 되므로 복회는 ‘제의적(祭儀的) 성격’¹⁹⁾을 띤다. 처녀가 세 호랑이에게 생길 분쟁의 씨앗을 안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서도 자기희생을 감행하는 데에는 불심(佛心)이라는 종교적 신앙이 기저에 있다. 그래서 죽으면 절을 지어달라는 처녀의 소원대로 김현은 절을 세우고 불경을 강(講)하며 처녀의 명복을 빌었다.

처녀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이타적 공적을 위해서이다. 그것은 가족애와 이성애(異性愛)를 넘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라는 총체적인 선을 위한 결단이다. 누이로서 가문을 대표하는 오빠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또 처녀로서 하룻밤의 인연으로 부부가 된 낭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모든 것을 여자의 몸 하나로 남매와 부부,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감당하려고 한다. 이것을 일연은 ‘떨어지는 꽃잎(落花)’으로 비유하여 무고한 여성의 희생을 미화하고 있다. 기실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가 조장한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이다. “〈金現感虎〉 텍스트는 아무리 아름답고 숭고한 종교적/도덕적 수사로 그녀의 죽음을 찬미한다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가문과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삶을 포획하기 시작하던 저 남성/가장 중심주의의 음험한 그림자”²⁰⁾를 보게 된다.

19) 헤로도타스가 요한을 해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들은 모두 제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헤로도테의 생일은 제의적 성격을 띤다. 이것은 일 년마다 돌아오는 잔치인데, 이때는 한 번 더 제의적인 축제 행사가 펼쳐진다. 공동체가 잔치에 모이고 잔치의 끝판에 가서 펼쳐지는 춤은 제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생일잔치 때 춤이 끝난 후에 살로메의 요구대로 요한이 참수 당했기 때문이다. 르네 지라르, 『희생양』, 김진식 옮김, 민음사, 1999, 242-251쪽 참조.

20) 정출현, 「삼국의 여성을 읽던 一然의 한 시각; 『김현감호』의 경우」, 283쪽.

〈金現感虎〉의 여성 희생을 통해서 편찬자 일연(一然)의 남성중심주의의 시각을 볼 수 있다. 여성을 이타적 공적이라는 고매한 명분으로 희생하게 하는 것은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지라르는 『희생양』에서 여러 신화와 설화에 들어 있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신화나 설화에 희생제의가 들어있다는 말은, 그것들이 생겨난 시점이 희생제의가 있고 난 뒤라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그 희생제의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만들어 내거나 기록한 이야기이므로 신화나 설화는 가치중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남은 자의 시각을 담고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모두 박해의 텍스트 *textes de persécution*라 부른다.²¹⁾ 역사란 남성 주체적인 서술 방식으로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역사는 박해사라 할 수 있다. 남성중심문화에 길들여져 여성의 희생이 숭고하고 성스럽게 미화되어 거기에 내재된 폭력을 알지 못하게 된다. 지고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이 헌신하는 숭고함 이면에는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남성지배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 여성의 희생을 성화(聖化)하는 것은 남성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폭력이다. 지라르에 의하면 그것을 폭력이 아닌 것으로 속여야 한다. 오빠에게 가해질 죽음이라는 징계를 무고한 처녀가 헌신으로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金現感虎〉의 처녀의 자기희생을 ‘성스러운 폭력이며, 이로 온 폭력’²²⁾으로 속이며 숭고한 헌신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Ⅲ. 정치적 권력 욕망에 바쳐진 여성 희생물

21) 르네 지라르, 앞의 책, 367쪽.

22) 류성민, 앞의 책, 31-37쪽 참조.

설화를 수용하여 소설화한 경우 설화의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소설적 리얼리티를 살려내면서 소설적 진실을 강화한다. 그것은 작가의 창작 의도에 따라 변형되는데, 소설에 나타난 설화의 굴절된 양상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화 〈金現感虎〉에서 처녀가 호랑이로 둔갑하는 전기적(傳奇的) 요소는 소설 〈虎願寺記〉에서 처녀의 어머니가 태몽에 호랑이를 보았다하여 호임(虎妊)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로 변형되어 호랑이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낭군(郎君) 김현과 처녀 호임은 흥륜사의 복회에 참례하여 만나게 된다. 설화에서 남녀의 만남을 원성왕, 흥륜사 복회 때라는 시·공간을 알리는 정도이나 소설에서는 배필을 구하는 남녀의 간절한 소망이 부각되어 생동감을 전해 준다. “복회는 해마다 수많은 청년 남녀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었다. 그것도 대개 현장에서였다.”(p.320)는 것은 복회 때 배필과의 상봉을 예시하는 서사의 복선이다. 탑돌이를 하는 마지막날 밤에 김현은 그토록 구하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도 꿈에 관음보살님이 나타나 배필을 점지해 준 일을 고백한다. 김동리에게 꿈이라는 소설적 장치는 예시적 기능을 하며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꿈에서 점지한 배필과의 상봉은 이 이후에 전개될 비련(悲戀)의 운명과 불교적 신앙을 뒷받침해 준다. 설화에서 김현은 양반의 아들이며 처녀는 미천한 신분이었다. 그것이 소설에서 김현이 ‘나마(奈麻- 제11관등) 김뇌의 아들’로서 양반관료의 아들로 구체화되고, 처녀는 ‘기왓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양반집 딸로 암시된다. 이 변화는 이류(異流)와의 교혼(交婚)이라는 설화적 요소를 벗어나 있고, 또 신분적 차이가 사랑의 장애가 되는 고전적인 전형을 벗어나 있어 서사 전개에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김현은 호임을 따라가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그런데 호임의 오빠들은 자신들이 모의하고 있는 반란을 김현이 염탐하러 온 것으로 오인하고 죽이려 한다. 그 사실을 알고 호임은 김현이 도망가게 길을 터준다. 김현을 탈출시키는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을 “그것은 원성왕(元聖王-제38대 왕) 칠년 삼월 열셋날이었다.”(p.327)고 하여, 소설의 허구적 상황에 역사적 시간을 기록하여 역사적 개연성을 부여하면서 사실감을 증폭시킨다.

소설과 설화의 배경이 되는 원성왕대는 왕권계승으로 분쟁이 있었고, 그 왕권계승 이후에도 체제세력과 반체제세력 간의 신분적 대립이 있었다. 그것이 설화에서 김현과 세 마리 호랑이가 대립하는 우화적이고 전거적(傳奇的)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이 소설 〈虎願寺記〉에서 표면적으로 김현과 호임의 비극적 사랑을 말하면서 그 이면에 왕권계승과 그로 인한 신분적 갈등과 대립이라는 당대의 역사 현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선덕이 돌아가고 아들이 없으므로 군신(群臣)은 후사(後嗣)를 의논하여 왕의 족자(族子) 주원(周元)을 세우려 하였다. 주원은 그 집이 서울 북쪽 20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알천(閼川)의 물이 불어서 주원(周元)이 건너오지 못하니,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인군(人君)의 큰 자리는 본래 인모(人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폭우(暴雨)는 하늘이 혹시 주원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닌가. 지금 상대등(上大等) 경신(敬信)은 전왕(前王)의 아우로 덕망이 본래 높고 인군(人君)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중의(衆議)는 만장일치하여 그를 세워 왕위(王位)를 계승케 하니 얼마 아니하여 비가 그쳐 사람들이 다 만세(萬歲)를 불렀다.(…) 이찬(伊瀆) 병부령(兵部令) 충렴(忠廉)을 배(拜)하고 상대등(上大等)을 삼고 이찬(伊瀆) 제공(悌恭)으로 시중(侍中)을 삼았더니 제공이 사면(辭免)하므로 이찬(伊瀆) 제강(世強)으로 (대신) 시중을 삼았다.(…) 이찬(伊瀆) 제공(悌恭)이 반(叛)하다가 복주(伏誅)되었다.(…) 상대등(上大等) 충렴(忠廉)이 죽으니 이찬(伊瀆) 제강(世強)으로 상대등을 삼고, 시중(侍中) 준옹(俊翁: 惠忠太子의 아들)

병으로 사면하자 이찬 송빈(崇斌)으로 시중을 삼았다.²³⁾

이찬 제공은 본디 원성왕의 족제(族弟)였다. 처음 원성왕은 왕위에 오르자 그에게 시중(侍中)이란 대직(大職)을 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지덕지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어정쩡한 얼굴이었다. 거기엔 까닭이 있었다.

본디 전왕(前王-宣德王)께서는 직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족자(族子) 김주원(金周元)이 왕위를 잇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덕왕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모두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김주원은 알천(關川-北川) 북쪽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 물을 건너야 하겠는데 특히 이 냇물은 물결이 거세어서 물이 조금만 많아도 건너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비는 자꾸 쏟아져내려서 물은 연방 불어만 갔다. 그 동안 조정에서는 전조(前朝)의 충신들이 회의를 열고 잠시라도 왕위를 비워둘 수가 없다 하여 당시 상대등으로 있던 경신(敬信)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다. 그가 곧 원성왕이다. 경신으로 말하면 (...) 왕위에 오를 만한 조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전왕의 혈연 관계로 보아 김주원이 가까웠을 뿐이다. 그렇건만 김주원이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몹시 부당한 것이라 하여 분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왕의 성지를 무시하는 반역 행위라 하였다. 이찬 제공도 물론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다. 당사자인 김주원이 양양불락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신왕은 이러한 불평등을 일소하기 위하여 김주원 계열에게도 관직을 안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라 일찍이 김주원을 받들던 이찬 제공에게 시중이란 대직을 주었다. 그러나 이 일이 처음부터 경신을 받들던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처음부터 경신을 받들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충렴(蟲廉)과 세강(世強)이 그 대표자들이었다. 본디 그들은 충렴이 상대등으로 된다면 세강은 시중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충렴은 예상대로 상대등이 되었으나 시중의 자리는 제공에게 빼앗긴 것이다.

23) 『三國史記』〈新羅本紀〉第10.

신앙을 배알하고,

「제공과 같이 처음부터 딴 마음이 있었던 사람에게 시중이란 대직을 맡기는 것은 나라의 전도로 보아서도 위험 천만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여기서 왕은 제공에게 주려던 시중의 자리를 세강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 지 육 년 뒤다.

제공은 그동안 혼자서 양양불락하다가 드디어 참지 못하여 일을 꾸미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 자신보다도 그의 아들과 동생들이 그를 떠메고 나와 시작한 일이었다. 그의 큰아들 양곡(良谷)과 동생 큰말(大斗)은 각각 수백 명의 무리 중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제공은 일이 이미 탄로된 것을 알고 무리들에게 항거를 못 하게 하고 스스로 나아가 순순히 자백함으로써 희생자를 덜 내려 하였다. 그 결과 제공 부자와 그 동생 큰말(온말)만이 주벌(誅罰)을 당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태형을 받고 놓여나게 되었다.(327-329)

『삼국사기』와 〈虎願寺記〉의 다소 긴 본문을 인용하였는데 그 둘을 비교하면 내용상 간극이 거의 없다. 역사적 사실이 곧 소설적 상황이다. 원성왕 때에 거의 매년 천재(天災)가 있었는데 우박과 가뭄으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였고 메뚜기가 창궐하여 흉년이 들었으며 유랑민과 도적떼가 늘어나 국정을 흔들여 놓았다. 그 난국을 틈타 원성왕 791년에 시중을 지낸 이찬 제공이 역모를 꾀하다가 도중에 발각되어 그 주역들이 처형당한 사실이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수용한 김동리는 반역을 도모하는 이찬 제공 아들의 무리로 호임의 세 오빠를 서사에 등장시킨다. 그들은 설화의 세 마리 호랑이의 변형이다. 그리고 그에 대립되는 세력으로나마(奈麻-제11관등) 김뇌와 그의 아들인 김현은 반역 모의를 조정해 고발한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정된 허구적 인물이다.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 인물에는 역사적 개연성이 부여된다.

설화에서 난동을 피우는 호랑이를 잡으라는 왕명을 통해 호랑이는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왕명을 받고 김현이 그 뜻을 완수하는 데 그는 '나라의 환란을 제거하는 주동자이며 왕권 집단의 일원'²⁴⁾이다. 소설 〈虎願寺記〉에서 호임의 오빠들은 이찬 제공의 아들의 무리들로서 반란을 모의하며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왕권을 둘러싼 적대적인 무리 형성은 왕권계승에서 촉발된 것이다. 왕의 족자(族者)인 김주원이 왕위를 계승하기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홍수로 조정에 오지 못하게 되자 왕위(王位)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상대등(上大等)으로 있던 경신(敬信)이 추대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데에서 신분적 대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왕위를 두고 김주원과 경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무리가 이루어지는 데 그 각 무리들은 '짜패double'²⁵⁾이다. 왕권을 둘러싼 짜패는 권력욕망을 유발하면서도 그 실현을 막는 경쟁자 혹은 방해자이다. 비등한 짜패들은 서로 팽팽히 견제하면서 권력의 '차별화'²⁶⁾를 위해 폭력을 행하게 된다.

호임의 오빠들은 김현을 염탐꾼으로 오인하고 죽이려 하자 호임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김현을 피신시키는데 김현은 자신들의 인연이 무상하다며 눈물 흘린다. 이에 호임은 모든 걸 불연(佛緣)으로 돌리며 반란 모의를 조정에 고발하도록 강권한다. 반란을 막아 살상(殺傷)을

24) 임갑남, 앞의 글, 109쪽.

25) "어디서나 동일한 욕망, 동일한 증오, 동일한 전략, 언제나 완벽한 일치 상태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는 동일한 환상이 존재한다. 위기가 심해질 수록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폭력의 쌍둥이가 된다." 지라르의 이들을 서로서로의 짜패double라고 부른다.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옮김, 민음사, 2000, 123쪽.

26) 서로 유사하거나 같다는 인식에서 짜패의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발생한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개인 간, 혹은 계층 간의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조작할 필요가 있다. 그 차별화(différenciation)의 장치가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위의 책, 498-499쪽.

덜고, 김현에게 나라의 은상(恩賞)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계율의 실천이요, 하룻밤에 부부의 인연을 맺은 낭군을 위한 헌신이다. 김현이 도망한 것을 안 호임의 오빠들은 모반의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든 원한들과 모든 증오들은 이제부터는 단 한 사람의 개인, 즉 희생물(victime emissaire)”²⁷⁾로 향하게 된다. 호임의 오빠들은 누이가 반역 모의를 염탐한 자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호임을 죽인다. 그들은 반역을 주도하는 공동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분출하려 하는 폭력을, 집단 외부의 대상이나 아니면 복수에 휘말릴 염려가 거의 없는 희생물이라는 집단 내부의 특정한 대상에게 분출시킴으로써”²⁸⁾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역모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호임을 역모의 방해자라고 판단하고 ‘가야파식의 논리’²⁹⁾로 누이를 죽인다. 복회의 마지막 날에 만나 그 다음날 새벽에 호임이 희생물이 되므로 복회는 제의적인 성격을 띤다. 권력 탈환을 꿈꾸는 모반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해 여성을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여준다. 〈虎願寺記〉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상상력의 산물이다. 김동리에게 신라는 “시간을 초월한 이상적인 세계”³⁰⁾가 아니라 권력 욕망에 사로잡힌 잔인한 인간의 현실 세계이다. “역사담론이

27) 위의 책, 123쪽.

28) 위의 책, 499쪽.

29) “현대의 정치사상은 모랄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인 모랄인 한 그것은 절대 순수한 모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랄 속에 들어갈 다른 성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면 우리는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 혹은 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낫다〉라는 가야파식의 논리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르네 지라르, 『희생양』, 김진식 옮김, 민음사, 1999, 201쪽.

30) 진정석, 「역사적 기록의 변형과 텍스트의 저항」, 『쇄원유기문학박사 송수기념논총』, 1995, 487쪽.

사실에 바탕을 둔 이른바, 사실 담론(the discourse of the real)이라 했을 때, 그것과 더불어 첨가되는 상상적인 담론(the discourse of imaginary) 혹은 욕망적 담론(the discourse of desire)도 역사서술(historiography)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진 것이다.”³¹⁾

IV. 결론

김동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근간으로 『김동리 역사소설』을 발표했다. 그 부제(副題)가 말해 주듯 작품집의 시·공간은 신라와 경주이다. 그것은 김동리에게 단순한 배경을 넘어 그의 사상적 연원이 되고 있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의 편집 체계는 연대기-신화-사실을 같은 지평에 놓고 보는 실재관(實在觀)을 드러내고 있다. 일연의 실재관과 김동리가 추구하는 천지인(天地人)이 합일된 세계는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설화를 허구화한 작업은 김동리에게 자연스러운 문학적 경로이다. 그의 역사소설에 대한 연구가 희소한 상태인데 김동리 소설 세계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소설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했다.

〈虎願寺記〉는 『삼국유사』의 〈金現感虎〉를 수용하여 허구화한 작품이다. 이에 선행 텍스트인 『삼국유사』의 〈金現感虎〉를 살피고 그것이 소설화 과정에서 어떤 변형을 거쳤는가를 알아보고, 설화의 소설적 변용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설화와 소설에서 여성 인물이 희생물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죽음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31) 홍경표, 「역사-인물 담론과 소설화 과정」,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9, 405쪽 재인용.

〈金現感虎〉의 김현과 처녀는 흥륜사 복회 때에 만나 하룻밤에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 이튿날 처녀가 희생양이 되므로 복회라는 축제는 제의적 성격을 띤다. 악행을 행한 세 호랑이를 징벌하겠다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호랑이 처녀는 오빠들을 대신하여, 또 하룻밤의 인연으로 부부가 된 낭군을 위해서 몸을 바치게 된다. 여성의 희생을 숭고하고 성스럽게 미화하는 것은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사고의 산물이며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설화의 세 마리 호랑이는 소설 〈虎願寺記〉에서 권력다툼으로 역모를 모의하는 무리들로 굴절된다. 이들은 역사적 근거로 설정된 허구적 인물로 역사적 개연성이 부여된다. 왕위를 둘러싼 싸움은 권력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폭력을 행하게 된다. 반역을 모의하는 호임의 오빠들이 김현을 염탐꾼으로 알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호임은 김현이 도망가게 길을 터준다. 이 사실을 알고 오빠들은 호임을 반역의 방해자로 여기고 살해한다. 여기에서 권력 탈환을 꿈꾸는 욕망주체는 자신들의 목적 실현을 위해 누이를 가차 없이 살해하는 정치세계의 비정한 규칙을 보여준다. 설화에서 처녀는 죽음을 자청하여 희생양이 되지만, 소설에서는 권력 탈환을 주도하는 모반자가 자신들의 목적 실현을 위해 여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김동리에게 신라는 낭만적인 이상적 세계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현실세계이다. 〈虎願寺記〉가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개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것은 김동리의 탁월한 역량에 기인한다.

〈숭실대학교〉

인용 문헌

- 『김동리전집』 4(저승새 · 만자동경), 민음사, 1995.
- 김부식, 『삼국사기』상,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2002.
-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 살림, 2003.
- 문홍술 · 박덕규 엮음, 『소설 신라열전』, 청동거울, 2001.
- 송희복, 『소설의 역사성, 소설사의 환(幻)과 탈역사성』, 청동거울, 2004.
- 신라사학회,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통일신라편), 경인문화사, 2008.
- 일연, 『삼국유사』, 이가원 · 허경진 옮김, 2006.
- 임갑남, 「〈金現感虎〉의 傳記性과 역사 현실적 의미」, 『신라학연구소 논문집』제2호, 1998.
- 장영우, 「김동리 소설과 불교」, 『불교어문논집』 6집, 2001.
- 정진홍,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 강, 2003.
- 정출헌, 「삼국의 여성을 읽던 一然의 한 시각: 金現感虎의 경우」, 『문학과 경계』, 2004호. 여름호.
- 홍경표, 「역사-인물 담론과 소설화 과정」,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9.
- René Girard,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 박무호 옮김, 민음사, 2000.
- _____, 『희생양』, 김진식 옮김, 민음사, 1999.

**Study on novelistic modification of
Kimhyunganho tale
- with focus on Kim Dong-Ri's "Howonsagi"**

Abstract

Bang, Minhwa

『*Kim Dong-Ri's historic novel*』 is rooted in 『*Samguk Sagi*(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nations)』 and 『*Samguk Yusa*(memorabilia of three nations)』. On the notion that very little study on his historic novel was made and so, for conclusive clarification of Kim Dong-Ri's novel, study on historic novel is need, this study began.

“Howonsagi” is a work having adopted tales and made them fantastic. In this regard, I reviewed “Kimhyungamho” in 『*Samguk Yusa*』 and inquired into the meaning provided by novelistic modification of a tale. Though there is a common feature between tale and novel that feminine character is made a scapegoat, type of death appears differently.

In “Kimhyungamho”, a virgin tiger sacrifices herself following God's will to punish three tigers having done wicked acts on behalf of her brothers and for her husband with whom she got through one night. Her sacrifice is beautified as falling blossoms. It is a product of patriarchal society, and demanding feminine death is a scapegoat mechanism of gender-discriminating society.

Three tigers of the tale are modified to a group of people plotting treason in conflict for power in “Howonsagi”. Each group resorts to violence to getting more power to hold the throne. Though Hoyim's brothers tried to kill Kimhyun misunderstanding him as a spy, they killed their sister who make him run away regarding her

as obstructor of treason.

A group trying to recover their power slew their sister to achieve their goal. There is a difference that in the tale, virgin tiger becomes scapegoat with her own will, but in the novel, she takes imminent death as an unavoidable fate. Kim Dong-Ri excellently describes Shilla as no idealistic world, but as evil reality of the people having desire for political power.

Key Words

설화(tale), 역사소설(Historical Novel), 폭력(Violence), 희생양(Scapegoat)
희생제의(Sacrifice Ritual)

방민화 Bang, Minhwa

E-mail: silbia007@@hanmai.net

논문 접수일: 2009년 02월 25일

심사 완료일: 2009년 03월 18일

게재 확정일: 2009년 04월 10일